



# 「신혼부부통계」를 통해 살펴본 출산 현황

이선주 연구원

최근 청년실업, N포세대 증가로 인해 평균 혼인연령이 증가하는 추세임. 이로 인해 혼인 신고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36.3%, 평균 출생아 수는 0.8명으로 나타남. 맞벌이 부부이고 높은 소득수준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반면, 자가주택이고 주택가액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과 양육지원, 주거복지 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와 관련된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최근 부각되는 청년실업, N포세대의 증가로 인해 20~44세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연령은 평균 30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sup>1)</sup> 이에 따라 실제 혼인연령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20~44세 미혼남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평균 32.3세, 미혼여성은 30.8세로 나타났으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50% 이상을 차지함
    - 또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혼여성 10%, 미혼남성 17.5%, 미혼여성 29.5%로, 직장에서의 불이익, 가사-양육 불공평, 경제적 이유 등의 이유로 출산을 기피함
  - 2015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혼인연령은 남편 31.8세, 아내 29.4세로 나타났으며, 혼인연차가 최근일수록 평균 혼인연령이 상향되는 양상을 보임<sup>2)</sup>
    - 혼인 1년차 신혼부부의 평균 혼인연령은 남편 32.1세, 아내 29.8세로 혼인 5년차 신혼부부에 비해 남편은 0.6세, 아내는 0.8세 높아짐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sup>3)</sup>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36.3%, 평균 출생아 수는 0.8명으로 나타났으며,<sup>4)</sup> 이는 혼인연령 상승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부

1)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통계청 보도자료(2016. 12. 26), “2015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3)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신혼부부로 2016년 기준 115만 1천 쌍으로 집계됨

**정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초혼 신혼부부 중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의 비중은 혼인 1년차 77.7%, 2년차 45.7%로 혼인 2년차부터는 절반 이상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혼인 1~2년차를 제외한 혼인 3~5년차인 신혼부부 중 20.5%가 여전히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p 상승한 수치임
  - 평균 출생아 수는 아내 연령이 20대인 경우 0.68명, 30대는 0.86명, 40대는 0.6명으로, 여성의 평균적인 초혼연령을 고려했을 때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sup>5)</sup>
- 신혼부부가 맞벌이 부부이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반면,<sup>6)</sup>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신혼주택의 가액이 높을수록 자녀 출산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sup>7)</sup>
- 2016년 기준 초혼 신혼부부의 44.5%가 맞벌이 부부이며, 그 중 자녀가 있는 부부는 57.8%로 외벌이 부부 69.1%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남
    - 혼인연차별 맞벌이 비중을 살펴보면, 1년차의 경우 51.2%, 2년차는 45.7%, 3년차는 42.9%로 특히 혼인 1년차와 2년차 사이에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음<sup>8)</sup>
  -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액 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평균 출생아 수는 감소함
    -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소득구간이 3천만 원~5천만 원인 경우 0.84명이며, 5천만 원~7천만 원은 0.77명, 7천만 원~1억 원 미만은 0.7명으로 높은 소득일수록 평균 출생아 수가 감소함
  - 신혼초기의 주택자산과 결혼 후 첫 자녀의 출생일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혼인 당시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주택의 가액이 높을수록 첫 자녀를 빨리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과 양육지원, 주거복지 등을 고려하여 신혼부부와 관련된 보다 현실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kiri**

4) 통계청 보도자료(2017. 12. 28),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5) 초혼 신혼부부의 아내 연령별 자녀 출산 현황은 있으나, 그에 부합하는 남편의 연령별 자녀 출산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음  
 6) 통계청 보도자료(2017. 12. 28), “2016년 기준 「신혼부부통계」 결과”  
 7) 배호중·한창근(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pp. 204~238  
 8) 이삼식 외(2015)에 따르면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간 취업 중이었던 기혼여성(15~49세)이 그 기간 동안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44.6%로 나타남